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

2017년 11월 2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22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11.22.(수)	담당부서	표준정책과
담당과장	주소령 과장(043-870-5340)	담 당 자	박해범 사무관(043-870-5341)

표준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.

- 「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포럼」 개최, 글로벌 표준거버너스 혁신 방안 논의 -

□ 김태년 의원(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)이 주최하고,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**'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포럼(World Standards Forum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)'**이 11.22.(수) 14:00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.

○ 이번 포럼은 **'표준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'**이라는 주제로 표준이 만들어 갈 더 똑똑한 스마트시티, 독일 인더스트리 4.0을 성공으로 이끄는 표준화 전략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표준의 역할을 논의했다.

<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포럼 개요 >

○ 주제 : 표준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
○ 일시 / 장소 : '17.11.22(수) 14:00~17:30 /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
○ 주최 : 국회 김태년 국회의원실
○ 주관 :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/한국표준협회
○ 참석 : 정세균 국회의장, 김태년 의원, 산업부 차관, 국가기술표준원장 등 300여명

□ 기조연설 및 주제발표에 참여한 존 월터(John Walter) 국제표준화기구(ISO) 차기회장, 프란스 브리즈빅(Frans Vreeswijk) 국제전기기술위원회(IEC) 사무총장, 레인홀트 피클러(Reinhold Pichler) 독일 인더스트리 4.0 표준화위원회 이사, 후미가즈 사토(Fumikazu Sato)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의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.

* ISO(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, 국제표준화기구)
IEC(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, 국제전기기술위원회)

○ 존 월터(John Walter) 회장은 **"표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도구이므로, 표준화를 통해 사람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융합을 추진하는 새로운 표준거버넌스가 필요**하다."라고 표준의 중요성을 말했다.

○ 프란스 브리즈빅(Frans Vreeswijk) 사무총장은 **스마트시티와 같은 융복합 표준화를 위해서 '시스템 표준화 거버넌스'를 도입**했다고 말했다.

○ 레인홀트 피클러(Reinhold Pichler) 독일 인더스트리 4.0 표준화위원회 이사는 디지털 변혁시대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, 6개 민간단체가 공동 협력하여 **'인더스트리 4.0 표준화위원회'를 신설하고 국제표준화를 주도**하고 있다고 소개했다.

* 6개 민간단체 : VDMA, ZVEI, BITKOM, DIN, DKE, Industrie 4.0

○ 후미가즈 사토(Fumikazu Sato) 국장은 일본 정부는 **초연결 산업의 대표 사례인 스마트제조 시스템에 주목**하고 있으며, 관련 연구개발, 국제표준 활동 참여, 중소기업 지원 등 **다양한 정책을 추진**하고 있다고 설명했다.

○ 국가기술표준원 정동희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**민관이 협력하는 표준화 생태계 조성**이 필요하고, **강력한 표준거버넌스 확립**을 위해 **국가표준화체계의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**했다.

□ 이어, 패널토론에서는 **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표준정책, 표준화체계 혁신 방안, 표준기반 스마트시티**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.

○ 패널토론에 참석한 존 월터(John Walter) 회장은 스마트시티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(ICT), 사물인터넷(IoT) 등 최첨단 기술 시스템과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갖추어야 하는데, 이를 위해서는 **표준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.**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11-22 11:10:41

○ 또한, **한국 정부와 국회가 '스마트시티와 표준'과 같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매우 높게 평가**하며, 향후에도 전 세계 전문가들과 함께 스마트시티 표준화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.

□ **이인호 차관**은 축사를 통해 **"4차 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교통, 의료, 금융, 교육 등 우리 생활 전반에 대변혁을 가져오고, 이러한 변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물과 사물, 사물과 사람, 사람과 사회 등 연결이 가속화되는 초연결성에 있다."라**고 말했다.

○ 또한 "초연결을 위해서는 **기술적 측면에서는 상호운용성 확보**와 **사회적 측면에서는 혁신에 대한 공동체 합의인 표준이 전제**되어야 하므로, 정부는 민간중심의 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해 **과감한 규제 개선, 표준연계 연구개발(R&D) 집중지원, 민관 협력의 표준화체계 구축**을 적극 지원하겠다."라고 말했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포럼에서 발굴된 표준정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, 자율주행차 등 **유망 신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,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함**

○ 또한, 이번 포럼을 국제표준(ISO), 국제전기표준회의(IEC) 국제표준화 기구, 4차 산업혁명 주도국, 핵심기술의 수출 대상국 등이 참여하는 **국제포럼으로 정례화**하고, 국제사회에서 **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표준 이슈에 대해 국제적 논의를 주도**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.

※ 참고 : 정세균 국회의장 축사 및 김태년 의원 개회사는 당일 별도 배포 예정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임완빈 연구관(☎ 043-870-5347), 박해범 사무관(☎ 043-870-53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포럼 개요

□ 배 경

○ 산업 및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규모 변혁을 초래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**표준의 역할을 인식하고, 혁신성장 방안 모색**

○ **주요국 표준화 전략***을 **공유**하고, 4차 산업혁명 대응 표준화 정책 논의

* (美) 첨단 제조업육성전략('13), (日)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('16), (獨) 인더스트리 4.0('13)

□ 행사 개요

○ 주제 : 표준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

○ 일시 / 장소 : '17.11.22(수), 14:00~ /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

○ 주최 / 주관 : 국회 김태년 의원실 / 국가기술표준원, 한국표준협회

□ 프로그램(안)

시 간	주 요 내 용	비 고
14:00~14:05	개회선언 및 내빈소개	사회자
14:05~14:10	개 회 사	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태년
14:10~14:15	축 사	국회의장 정세균
14:15~14:20	축 사	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인호
14:20~14:30	내빈 간 인사 및 기념사진 촬영	내빈 전체
14:30~14:45	기조연설 1	John Walter (ISO 차기 회장)
14:45~15:00	기조연설 2	Frans Vreeswijk (IEC 사무총장)
15:00~15:20	(주제발표1) 인더스트리 4.0과 표준화	Reinhold Pichler (플랫폼인더스트리 4.0 이사)
15:20~15:40	(주제발표2) 일본의 혁신정책 및 표준화 전략	Fumikazu Sato (경제산업성 국장)
15:40~16:00	(주제발표3)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화 정책	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정동희
16:20~17:30	【표준정책 패널 토론】 ㅇ 주제 :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변화에 따른 표준의 중요성,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표준의 역할, 국가표준 거버넌스, 스마트시티 표준화 ㅇ 좌장 : 최갑흥 교수(성균관대학교) ㅇ 패널(6명) · (ISO) John Walter ISO 차기회장 · (IEC) Frans Vreeswijk IEC 사무총장 · (독) Reinhold Pichler 이사(Platform Industry 4.0 표준화위원회) · (일) Fumikazu Sato 국장(경제산업성) · (한) 한진규 IEC SMB 위원(삼성전자) / 강병구 국장(국가기술표준원)	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11-22 11:10:41

붙임2 연사 주요경력 및 발표 주제 (안)

연사명	기조연설 및 주제발표 제목
 존 월터 (John Walter)	**(기조연설 1) 4차 산업혁명, 전례 없는 사회적 혁신 초래** **(주요이력)** • ISO 차기('18~'19) 회장 • ISO 정책부회장('14~'16) • 캐나다 표준위원회(SCC) CEO('09~현재) • 캐나다 표준협회(CSA) 부회장('01~'09)

<발표내용 요약>

□ 표준은 모든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, 제품·서비스간 상호운용성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

○ ISO는 기기 간 통신이 핵심인 스마트 제조 표준화, 운송수단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적인 지능형 운송시스템 표준화 등에 주력

□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표준화를 통해 사람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융합을 추진하는 새로운 표준거버넌스 체계가 필요

 프란스 브리즈빅 (Frans Vreeswijk)	**(기조연설 2) 인더스트리 4.0 - 국제표준 : 필수 요소** **(주요이력)** • IEC 사무총장 겸 CEO('12~) • IEC 이사회 위원('09~'11) /표준화관리위원회 위원('06~'10) • 필립스 헬스케어 표준특허 CEO('08~'12) • 아인트호벤 대학 디지털역량 개발 책임('99~'03)

<발표내용 요약>

□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센서 네트워크, 빅데이터, 엣지 컴퓨팅 등이 전례 없이 통합되어 엄청난 효율성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

○ 표준을 활용하면 별도의 통합 노력 없이도 연결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표준은 '선택이 아닌 필수'임을 강조

□ IEC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와 같은 융복합 표준화를 위해 '시스템 표준화 거버넌스'를 도입

* 스마트시티 융합표준화 : 스마트홈, 스마트교통, 스마트헬스 등을 연계 표준화

 레인홀트 피클러 (Reinhold Pichler)	**(주제발표 1) 인더스트리 4.0의 핵심 요소, 국제표준** **(주요이력)** • Industrie 4.0 표준화위원회(SCI 4.0) 이사('16~) • DKE 전기·전자·정보기술위원회 위원('13~) • Siemens AG and Nokia Siemens Network 근무

<발표내용 요약>

□ 독일은 디지털 변혁시대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, 6개 민간단체가 공동 협력하여 '인더스트리 4.0 표준화위원회'를 신설하고 유럽·국제표준을 주도

* 6개 민간단체 : VDMA, ZVEI, BITKOM, DIN, DKE, Industrie 4.0

○ 인더스트리 4.0 표준화 위원회는 산·학·연·관 간 표준화 협력을 수행하고, 중소·중견기업 지원방안을 제시

□ 독일은 인더스트리 4.0 플랫폼을 확산하고자 ISO/IEC 공동작업반(Joint Working Group)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 후미가츠 사토 (Fumikazu Sato)	**(주제발표 2) 초연결 산업과 표준의 역할** **(주요이력)** • 경제산업성 표준화위원회 사무총장('17~) • 경제산업성 산업과학기술정책국 심의관('17~) • 경제산업성 기술규제, 표준, 적합성정책국 국장 ('14~'15) • 아키타현 부지사('08~'09)

<발표내용 요약>

□ 일본은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하여 산업을 혁신하고, 생산성을 제고하는 '초연결 산업'에 주목

○ 초연결 산업은 인간, 기계, 기술이 기존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며, 표준이 초연결의 핵심요소임을 강조

□ 초연결 산업의 대표 사례가 스마트제조 시스템이며, 일본 정부는 관련 연구개발, 국제표준 활동 참여,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

○ 특히, 한·중·일이 협력하여 IEC에 스마트제조 관련 신규 작업반(WG)을 설립하고, 스마트제조 참조모델 국제표준을 개발 중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11-22 11:10:41

정동희
(Dong-hee Jung)

(주제발표 3) 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표준화 체계

(주요이력)
- 국가기술표준원 원장('16~)
-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('14~'16)
-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('13~'14)
- 녹색정책위원회 에너지정책국장('11~'13)

<발표내용 요약>

□ 표준은 스마트 디바이스, 스마트 플랫폼 구축에서 스마트시티의 구현에 이르기까지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중요 역할

○ 교통카드, 반려동물 등록제도 등의 시행 초기 실패를 통해 사회적 합의로서 표준의 중요성 인식

□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지속가능사회 구축을 위해 표준 거버넌스의 혁신이 절실

○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표준 정책 수립 및 부처별 정책 집행의 지원·조정을 위한 표준총괄기관 필요

○ 정부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, 전문가부터 소비자까지 모든 [illegible]자가 협업하는 민관협력형 지속가능 표준생태계 구축이 바람직

Minist
Indus